

2014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모집 면접 문제(오전)

[교직 인성]

※ 다음 자료를 1분 정도 읽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.

“야단났네.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……!” 나는 시계를 보며 허겁지겁 문을 나섰다.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게 보였다. 처음 보는 아이였다.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. 뭐가 그리 슬픈지 몸을 부들부들 떨며, 흐느끼고 있었다. “애, 왜 그러니?”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울기만 했다. 나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.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. 나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. 그 아이의 부모나 이웃, 또는 친구일 법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. 마침 우리 집에도 지금은 아이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.

질문

자신이 자료의 ‘나’의 입장에 처했다면 자신이 택할 행동을 말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시오.

출제 기준

- 예비초등교사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, 교직에 대한 이해, 사회공헌의지, 교사로서의 잠재력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.
- 교직을 지망하는 학생의 교직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갈등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.
- 면접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지는 않도록 한다.

채점 기준

- ▶ **우수** : 아이의 처지에 대한 배려심이 잘 드러나며 주어진 상황에 현명히 대처하는 모습
- ▶ **보통** : 아이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지만 조리 있는 입장을 내세웠거나, 배려심은 있어도 조리 있는 입장을 내세우지 못한 경우
- ▶ **미흡** : 아이에 대한 배려가 크게 부족하거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가 없을 경우